

‘민중의 소리’ 를 펴내면서

민중사는 지금 표류하고 있다. 민족성원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일체감, 그리고 존엄과 긍지를 내던진 반 민족적 집단에 의하여 이 민족의 삶의 문제가 어이없이 농단되고 있다. 이 민족 삶의 터전인 한반도가 강국들의 세계전략 앞에 별거벗기는 채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이 민족의 명운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 우리의 주체적 감성과 능력으로 지키고 개척해야 할 사명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명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우리의 피 속에 진하다 진하게 흐르는 민족의 얼과 존엄을 키울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조건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민중이다. 통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민족으로서 하나되게 하고, 한 핏줄, 한 형제임을 뜨겁게 확인하게 해 주는 이 땅, 우리의 정서, 문화,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 땅이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며, 숨쉴 공간과 살아가야 할 땅을 죽이는 공해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 땅위에서 매관적 외래 문화가 축출되고 우리의 문화 - 우리의 몸짓, 우리의 노래, 우리의 웃음이 평화롭게 펼쳐질 것을 바란다. 민족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들의 행위가 이 민족을 어디로, 어떤 나락으로 끌고 가는지조차 모르는 비이성적 집단의 정신파탄 아래 우리의 문화는 떠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갖고 싶다. 우리의 것을 새롭게 발전, 창조하고 싶다. 문화다. 맑다 밝은 이성과 혼으로 되찾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우리들의 문화다.

민중은 독재적 억압아래 가위눌려 있다. 깨어 일어나 그 억압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어둠을 박차고 민중이 역사속에서 제 목소리를 되찾아 자신을 관철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야 한다. 진정한 새시대는 민중과 더불어 민중 속에서 열려야 한다. 우리는 민중 위에 존재하는 선민이 아니라 민중 그 자체임을 온몸으로 확인한다.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역동적인 민중운동에의 치열한 자기투신은 민중의 날이 확실하게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들 민중은 어리석은것 같으나 위대한 힘과 강인한 의지를 갖추고, 이웃에 대해 인간다운 짙은 애정을 지닌 땃땃하고 싱싱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민중이다.

민주주의란 민중의 피와 민중의 칼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민중이 선택하여 갖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민중이 자신에 거역하는 권력을 개폐, 타파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민중의 것이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이다. 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이 사회의 시민과 그들의 다양한 집단이 자율적 활력 속에 자기의 본분과 몫을 다 할 때 민주주의가 온다.

노동자는 노동현장으로, 학생은 학교로, 기자는 언론으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그리고 군은 국토방위에 기록한 사명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어김없이 온다.

민주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민주주의다.

평등은 민주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다. 소수의 부패와 특권을 위하여 절대다수 민중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결과일 뿐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소수 부패특권층의 퇴폐와 허영이 팽배한 가운데 농민과 어민, 노동자와 실업자, 생업박탈자, 병사와 순경, 봉급생활자, 영세상인, 도시빈민, 중소생산업자 등을 포함하는 절대다수 민중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모멸과 문화적 소외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중의 인간다운 삶의 전제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3권, 농민3권의 보장 없이는 선진조국도, 민주도, 정의도, 복지도 없다. 민중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민주주의로써만 진정한 국민평화와 사회정의를 건설할 수 있다.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민생운동의 획기적인 전개와 그 승리로써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민생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다.

이 모든 소리 '민중의 소리'이다. 빛의 소리이며 역사의 소리이다. 민중의 삶의 소리이다. 민족의 소리이며 이성의 소리이다. 말씀의 폭풍이다.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 제도언론이 국민내부를 간질이 찢어 이간분열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국민내부를 하나되게 하는 평화와 화합의 소리이다. 공작언론이 퍼뜨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민중의 저 낮은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의 소리이다. 인위적 장벽을 뛰어 넘어 민중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소리이며, 보고 들는 이로 하여금 뜨거운 동포애와 정의로움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힘의 소리, 진리의 소리이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저 하늘 끝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불멸의 소리이다.

민중의 소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정론이다. 이 민족, 이 국토, 우리들 민중의 삶과 문화를 수호하는 마지막 과수꾼이 되는 민족언론이다.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민주언론이며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민생언론, 민주언론이다. 이 작은 빛이 버지않아 온 나라, 온 민중의 마음을 비추고, 나아가 온 누리를 밝게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창간호 1984년 10월 18일(민민협발행)